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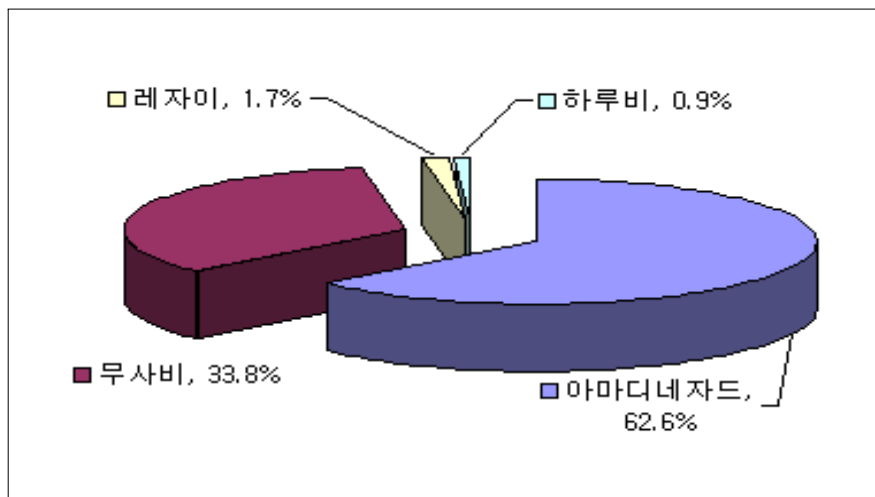
이란 대선 결과 및 향후 전망

1. 제 10대 이란 대선 결과

□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압도적 표차로 당선

- 지난 12일 실시된 이란 대선에서 강경보수파인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박빙의 승부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총 24.5백만표를 얻어 경쟁자인 개혁파 무사비 前총리를 62.6% : 33.8% 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함.
- 총 유권자 85%(39.1백만명)의 투표율을 보인 금번 대선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 최대의 정치적 드라마로 꼽히고 있으며, 개혁파인 무사비 前총리는 최근 TV 토론 후의 급격한 인기 상승추세와 초록색 리본 등을 이용한 지지자들의 전례 없는 거리 지지운동 등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실패함. 한편, 나머지 두 후보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둠.

< 대선 후보별 득표률 >



※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現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956년 테헤란 인근 빈민촌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1976년 이란과학기술대에 입학해 토목학을 전공했음.

2005년 대선출마 때 “석유 수입을 국민의 식탁으로” 라는 구호 아래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와의 전쟁 등을 강조해 서민층의 지지를 이끌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강경보수파 정치인인 그는 2005년 10월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만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 없애야 한다” 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재임 중 거침없는 독설과 강경발언, 그리고, 핵 문제 등으로 서방 국가들과 끊임 없는 충돌을 빚어왔음.

그는 서방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굳건한 지지를 받아 왔음. 2005년에 공개한 그의 재산 목록에는 테헤란 동부 중하위층 단지의 175 m²의 주택 1채와 30년된 푸조 승용차 1대, 잔액이 거의 없는 은행 예금 계좌 2개 정도만 있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음.

□ 대중의 정치 관심 제고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란 사회의 분열 노출

- 금번 대선에서 무사비 등 후보자들은 선거캠페인 초기만 해도 現대통령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으나, 인플레이션 등 現정권의 경제 실정과 대외 관계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도를 높여 나감.
- 특히 선거 막바지 TV 공개토론에서 타 후보자들과 現대통령이 열띤 공방을 벌이는 생소한 광경은 現정권 하의 무미건조한 정치 방송에 익숙해 있던 대중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었음.
-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색깔을 이용한 선거운동, 청년층과 여성층의 활발한 정치활동 참여 그리고, 휴대전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지지자들의 유세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금번 투표참여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이란 선거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
- 그러나, TV 토론 등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부 후보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역시 現대통령이 거짓말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대응을 하는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개혁파와 보수파와의 뿌리 깊은 분열 상황을 보이기도 함.

□ 투표 결과 불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번복 가능성은 희박

- 개표 결과가 알려지자, 무사비 후보 지지자 수천명이 테헤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선거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주요 지지자였던 젊은이와 여성들이 여러 차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목격되었음. 알자지라 방송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보도함.
- 무사비 후보 측은 14일, 투표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선거 감시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 일부 강세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관인 허용이 불허된 일부 개표소의 상황 등을 언급하며, 속임수로 집권을 시도하는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함.
- 하지만, 경찰이 주요 도로와 광장을 봉쇄하고, 시위대원들과 개혁파 지도자들을 검거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투표율에 대해 이란 국민들의 이슬람 혁명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국가적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언급하며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표 결과의 번복 또는 재선거 실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당분간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대외정책 기조 유지할 듯

-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선거에서 타 후보들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란을 공격하려는 일부 국가들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함.
- 또한, 그는 이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며, “이란의 핵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동국의 핵 문제 및 대외관계에서 당분간 서방 국가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 존재

- 그러나 이번 대선과정에서 現정권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란 국민들이 인플레이와 실업률 등 열악한 경제 상황과 서방 국가들과의 대외관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現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대미 관계 개선 등의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국이 핵 개발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방과의 접점을 찾는 시도 등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책임조사역 한종수(☎02-3779-6655)

E-mail : jshan@koreaexim.go.kr